



28만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순 천 시 의 회
SUNCHEON CITY COUNCIL

2023년 2분기 제39호

의정소식

The Suncheon City Council News







C O N T E N T S

02 인사말

04 주요뉴스

06 회기별 처리 안건

- 의원 발의 안건
- 그 밖의 처리 안건

12 주요 의정활동

- 대정부 건의
- 의원 자유발언

30 상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38 특별위원회 활동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40 의회갤러리

46 순천뉴스

49 순천시의회 안내

제9대 순천시의회 개원 1주년, 초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회입니다.

싱그러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제9대 순천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뒤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 오를 새롭게 다져 봅니다.

지난해 7월에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순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험 많은 재선 의원님과 열정이 넘치는 초선 의원님들이 의기투합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25명 모두는 시민 여러분께 처음 약속드렸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셨기에 무탈하게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시는 남해안벨트 중심 도시를 위한 도약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와 국토교통부 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은 순천의 도약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할 것이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시는 웰빙·행복·건강을 고루 갖춘 휴양 도시이자 웰니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우려도 있지만 순천시의회는 이들 사업이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 흘러가지 않도록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함을 물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꼼꼼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기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나온 1년에 대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면서, 오직 시민을 위한다는 초심을 다잡고 남은 3년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267·268회 임시회의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결과와 대정부 건의·자유발언 등 생생한 의정활동 현장을 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정명희

NEWS

NEWS 01

순천시의회,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3월 14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 응급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및 119신고 →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법 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전감있게 진행됐다. 정병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인 교육으로 시의원 모두가 심폐소생술의 전문가가 되어 순천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 02

순천시의회,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관리(주)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 약정식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3월 28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관리(주)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오선경 사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월에 이어 총 4,3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통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정병회 의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큰 힘을 실어주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관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원도시의 표준을 선보이는 품격있는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이번 약정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타임건설 등 총 7,090매, 8,100만원 상당의 입장권 사전 구매를 이끌어 냈으며, 이 외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의회를 방문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EWS 03

순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4월 4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이복남)은 회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순천시의회 의원(이복남, 장경순, 정광현), 전 순천시의회 의원(박동수), 회계사(김태호, 양효석), 순천대학교 교수(박병희), 전직공무원(유희성, 전병선, 진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총 20일간 순천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난해 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위촉장을 전달한 정병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적정성을 검사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며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 결산검사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 04

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4월 5일 국회를 방문하여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결의문을 전달했다.

정병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확정된 순천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내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순천이 지역 분할의 희생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참정권’과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발의

제267회 임시회(2023. 3. 14. ~ 3. 20.)



의회

발의자 오행숙 의원 외 12명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소형경전철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형경전철 이용 목적지(순천만) 안내 및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문학관역을 순천만역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갈대열차 운행 구간 명칭 정비



의회

발의자 최현아 의원 외 11명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등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지진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운영하여 시민안전 확보



의회

발의자 최미희 의원 외 13명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학교 교과과정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만잡월드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고,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근거 마련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박계수 의원 외 5명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 장경순 의원 외 5명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장기 재직 공무원의 미사용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한 직원 사기양양



발의자 장경원 의원 외 11명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 김미연 의원 외 1명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 이세은 의원 외 5명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각종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 정홍준 의원 외 8명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최병배 의원 외 9명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순천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우성원 의원 외 8명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 신규 생태체험선 운영으로 탐방객들에게 순천만 갯벌 및 습지의 다양한 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의원발의

제268회 임시회(2023. 5. 9. ~ 5. 18.)



의회

발의자 장경순 의원 외 6명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의회

발의자 최현아 의원 외 8명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 지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문 변경, 법적 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



의회

발의자 유승현 의원 외 10명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순천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최대 3명까지 선임 가능함에 따라 의원이 맡게 되어있는 대표위원 선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박계수 의원 외 1명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활동을 하는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 필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소방대원 지시 사항 규정



의회

발의자 정광현 의원 외 7명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통학로 용어 정의 및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의회

발의자 나안수 의원 외 6명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의회

발의자 신정란 의원 외 4명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순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의회

발의자 이복남 의원 외 3명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회

발의자 정흥준 의원 외 13명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경찰(범죄예방) 폐쇄 및 소방(화재대피) 개방 입장에 따른 절충 방안 마련



그 밖의 처리 안건

제267회 임시회

(2023. 3. 14. ~ 3. 20.)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제7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8회 임시회

(2023. 5. 9. ~ 5. 18.)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4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계획안 (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순천시 2032년 고등직업거점교육지구 사업 지원 동의안
-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 (재)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정부 건의



이영란 의원

왕조2동 / 행정자치위원회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

광양에 합구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고, 순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함

전 문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 특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있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년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우리 순천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해 뒤튼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제1의 도시인 우리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접 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방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순천시민들은 온전한 지역 대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사, 즉 지역 주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 선거구제,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간 유·불리에 따라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또다시 주민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을 우려해 28만 순천 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순천 시민의 의사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라.

하나,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

2023년 3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신정란 의원

비례 / 문화경제위원회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함

전 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변제’로 결정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인수하는 것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짓값을 대신 갚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법행위를 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세계대전의 동일한 전범국이지만, 나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죄 등의 책임을 다한 독일 정부와는 극과 극의 역사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

피해 보상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보상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전범 기업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투쟁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시키고 있다.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역사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라.

2023년 3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장 경 원 의원

외서·낙안·별량·상사면, 도사동 /
행정자치위원회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초순 이상저온으로 개화한 꽃눈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작물 피해로 생계 유지 마저 걱정해야 하는 저온피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피해보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함

전 문

지난 4월 8일과 9일 평년 대비 이상 저온 현상으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 사과, 복숭아, 매실 등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이는 지난 3월 이상 고온으로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어 올해에는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남, 전북, 충남, 세종, 경북,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5월 1일 기준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배 재배면적 175ha 중 50%가 넘는 88ha에 피해가 발생했고, 월등면과 황전면에서는 복숭아 재배면적 122ha 중 37ha, 매실 재배면적 738ha 중 222ha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과 같은 착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낙안면의 경우 적과 시기를 앞두고 열매 없는 배나무를 보며 농민들은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과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자칫 과수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으로 인해 고사한 과수의 경우 새로 심어도 나무의 생육기간인 5~6년은 수확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묘목 구입비도 100%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률을 상향 조정하여 저온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보험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시기도 과정에 따라 달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인 만큼 향후 재해보험 정책 내용 조정 시 과수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과수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 개량 등 선제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온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미세살수장치, 열 방선편 연소장치 등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과수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과수농가의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냉해 피해 보험 보상률 상향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과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김미연 의원

조곡·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함

전 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배상 결정 등, 연일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일 외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일러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까지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무책임한 것이며 나아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큰 국가의 존재 이유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장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철저한 원산지 단속 등 보다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대정부 건의



정 광 현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 /
문화경제위원회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역에서 소아응급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등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전 문

최근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기다리는 ‘오픈런’ 현상이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와 애타는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가득한 병원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저출산, 인력난 등으로 소아과 병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과 함께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과로, 해마다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낮다 보니 나머지 전공의들은 기존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경우의 수와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성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전공의가 줄어들고, 소아과 병원들이 줄어들면서 아픈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너무 막연하고 힘든 상황이 더욱 더 심해질 전망이다.

순천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7개소이다. 이중 신생아 중환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록 수는 30명이다. 집 근처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있는 순천시 역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진료대란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아 중환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나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8곳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광주, 전남, 전북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 경증환자를 위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순천과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문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천 인근에는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지역적 불균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차이도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저출생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이라며, 위기의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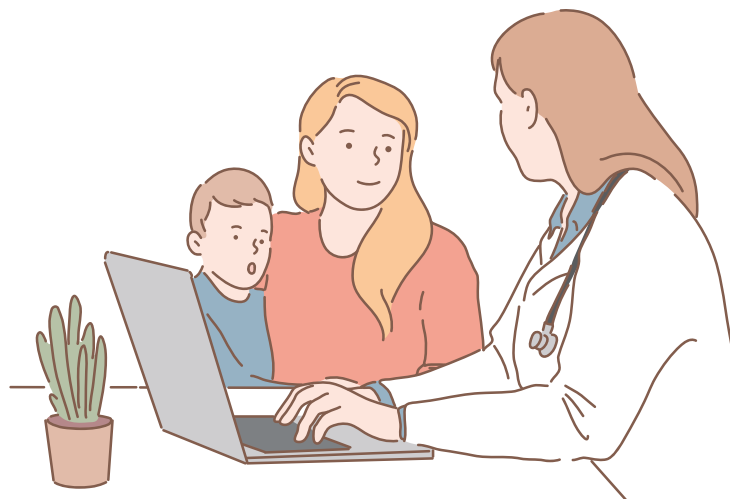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서는 중증 소아환자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미설치 권역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 등을 개선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소아 응급 의료체계 위기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저출산, 인구감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소아응급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자유발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추진해야

이 세 은 의원

비례 / 문화경제위원회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이세은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제267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서 3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기 위한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이세은 의원은 첫 번째 순위로 꼽힌 노동개혁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라며 합리적이고 깨끗한 노동시장, 노동현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라며 조속히, 확실히 개혁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 개혁은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 근로 현장 안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해 개선시키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직 및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장 경 순 의원

왕조1동 / 행정자치위원회

- 통학거리 기준 약 2.5km 떨어진
조례초등학교 배정 지적



장경순 의원은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1항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km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2024년 기준 초등학생 약 800명 정도의 급격한 유입이 예상되는 왕지2지구에 대해, 사적 부담의 통학버스 운영을 조건으로 통학거리 기준 약 2.5km이상 떨어진 조례초등학교로 배정했으며, 이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초등학교는 기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 취지를 훼손 하면 서까지 기존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을 추가 수용할 목적의 증축으로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지2지구 인근의 왕운초등학교는 이미 학생 수가 1천명을 초과하여 과밀 학급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며, 조례초등학교 또한 65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 두 곳 모두 2024년 유입될 경우 1,300명에서 1,500명대의 거대 학교가 되어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장경순 의원은 개발 수요가 많은 순천 왕지2지구 학생들을 위해 확보된 학교용지에 기존 초등학교 이설 또는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는 우리 지역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에 따른 유동적 학교 배치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 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 자유발언



경영난에 내몰린 소상공인, 파격적 지원책 마련돼야

김 태 훈 의원

조곡·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경제의 어려운 여건 지속

지난 3월 20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훈 의원은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빚은 늘어 경영난에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서도 보면 응답자의 89.7%가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취급 금리는 2021년 말 2.40~3.09%에서 2022년 말에는 5.03~ 5.52%로 1년 사이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많은 숙박, 음식업의 경우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출 비용 증가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김태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으로 올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캄캄하다”며, “소상공인의 업계 현황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므로 경영난 해소 및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순천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 대구, 서울 도봉구, 전남 광양, 강원 원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5~6% 이차보전, 난방비 지원, 판로 지원, 고용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고용승계해야

최 미 희 의원

왕조1동 / 문화경제위원회

·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미희 의원은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생존권 위협에 놓인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순천시 조직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와 유지를 하겠다면서, 새로운 업체가 오더라도 근로계약서만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서류 접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며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노동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도 노동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이므로 고용안정과 고용승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을 정부 용역지침에 근거해 고용을 승계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의원 자유발언



집행부, 의회 입법권 보장해야

정 광 현 의원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 / 문화경제위원회

· 집행부, 의회 입법권 침해...
수동적 행정 질타

지난 3월 20일,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광현 의원은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입법권 침해 및 수동적 행정을 질타하며, 의회의 입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3월 15일 순천시가 입법예고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 집행부보다 먼저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주무부서(안전총괄과)의 부정적 의견에 조례 발의를 중단했던 정 의원이 ‘입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포항시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준비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의회 입법팀에서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올 1월 초 의회 입법전문위원 담당자를 통해 안전총괄과에 순천시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현황과 침수방지시설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며 입법 의지를 전달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무부서의 답변에 의문이 들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와 의논이 필요하다는 의회 입법팀의 판단으로 조례 발의 진행을 잠시 멈췄다”며 “그러나 최근 집행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결재까지 완료된 상태로 입법예고가 올라왔고, 의회에는 사전에 어떤 공유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지 불과 며칠 만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 급히 조례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수동적 행정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의 입법 인지를 못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풍덕초 교명 변경 공론화 해야

김미연 의원

조곡·덕연동 / 문화경제위원회

- 교명은 지역성과 역사성, 학교의 정체성을 담아야
- 정원을 매개로 한 특성화 교육 등 필요성 역설



김미연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만국가정원 앞 연향동에 위치한 풍덕초등학교의 교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풍덕동은 해룡천을 건너야만 하는 곳인데 풍덕초등학교로 명칭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왔으며, 학교 명칭은 지역성과 역사성, 학교의 정체성을 담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풍덕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한 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되고 택지지구 명칭도 연향3지구로 변경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최초의 택지지구 명칭을 따서 학교 이름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연 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올해가 풍덕초등학교의 교명을 바꾸는 좋은 기회이며, 정원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 홍 준
위원장



장 경 원
부위원장



이 향 기



김 태 훈



최 현 아



양 동 진



이 세 은



정 광 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홍준)에서는 제267회 임시회부터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다음 회기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등 의회 조례, 규칙을 개정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지방의원의 징계 기준을 논의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뿐 아니라 향후에도 연속성 있고 통일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무출장을 위해 이를 반영하여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어 통일성 있는 행정운동을 위해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했다.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제2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순천시의회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고,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부적절한 약칭 및 잘못된 관련 근거를 수정하여 올바르게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징계 및 구속시의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과 그 정도에 대해 논의했고 의원 간담회 자리를 통해 결과를 공유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 제26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제26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영란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



박계수



유영갑



정홍준



장경순



유승현



장경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에서는 지난 제267회 임시회 및 제268회 임시회 기간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하남유니온파크,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일반안건은 조례에 대한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와 객관화된 지표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동의안 3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5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했다.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시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 개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했고, 행자위 소관 시설인 순천시 종합관제센터,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성장산업과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승주다목적회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현장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의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문화재 주변 공유재산 취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순천시 종합관제센터 현장방문



▲ 뿌리깊은박물관 공유재산 취득 현장방문



▲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방문



문화경제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



나안수



최미희



김미연



신정란



김태훈



이세은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진)에서는 제267회,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의결, 간담회 개최, 정책 현장 및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심사·의결했다. 또한 경관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 농특산물 판매장(팜라운지),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조성사업 대상지 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전 문화경제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받고, ‘순천시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와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수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향후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더불어 낙안과 월등의 과수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농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팜라운지 현장방문



▲ 신축 신대도서관 현장방문



▲ 과수 피해농가 현장방문



도시건설위원회



최 병 배
위원장



양 동 진
부위원장



강 형 구



이 복 남



오 행 속



우 성 원



이 향 기



서 선 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에서는 제267회 임시회부터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업무보고 등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개정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병배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등 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개정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의 심사결과가 나왔고,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도로 차선 폭 축소 및 보행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현장(국가정원, 순천만습지)을 방문하여 박람회 개최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점검했다.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을 심사하여 보류 1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의 결과가 나왔고,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재계약 보고를 받았으며, 장천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사 현장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시민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지도·점검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 개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방문



▲ 그린아일랜드 현장방문



▲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현장방문



▲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현장방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는 박람회를 40일 가량 앞둔 지난 3월 23~24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3월 23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상가를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홍보했고, 24일에는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달서구의회를 방문하여 각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 연찬회 등 의회 행사 시 정원박람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는 지난 5월 2일, 순천시·여수시의 10·19사건 여순항쟁유적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전국 최초의 여순항쟁역사관과 10·19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여·순 10·19사건의 아픈 역사를 배웠고, 여수시로 이동하기 전 여순항쟁탑을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다. 오후에는 여수시의 14연대 주둔지,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 등 아픈 역사를 지닌 장소를 방문하며 여·순 10·19사건의 역사적 재조명과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268회 임시회 중에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및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순천시 자치행정과와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외 5곳의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10·19 여·순 주간 명문화 등 제안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갤러리

PHOTOGRAPHY

QR코드를 통해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 해 보세요



2023. 3. 4. 매곡동 탐매축제



2023. 3. 16.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 점검



2023. 3. 29.
전국이통장연합회 순천시지회장 이취임식



2023. 3. 31.
진주시의회 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여



2023. 4. 1. 재경순천향우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4. 2. 용당뚝방길 벚꽃축제

2023. 4. 3. 노원군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4. 6. 제2회 의용소방의 날 기념식 및 기술경연대회



2023. 4. 10.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023. 4. 12. 물위의 정원 개장식



2023. 4. 13. 낙안면민의 날



2023. 4. 13. 로얄오브캠보디아 간담회



2023. 4. 14. 아름다운가게 순천연향점 14주년 행사



2023. 4. 1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023. 4. 22. 제18회 장애인 등반대회



2023. 4. 26. 역전시장 한마음 대회



2023. 4. 25. 괴산군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2. 노사민정 어울림 마당



2023. 5. 3. 창녕군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11. 포천시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8. 어린이날 행사



2023. 5. 11. 부평구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14. 순천시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대회



2023. 5. 15. 하남시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16. 목포시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16. 연제구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16. 장성군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20. 순천시의회 의장기 전남 테니스대회



2023. 5. 22. 순천불교 사암연합회 봉축 법요식



2023. 5. 23. 함평군의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2023. 5. 25. 2023년 전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

4월 1일부터 7개월 간의
대장정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3월 31일 오전그린광장과 그
린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동천 위 수상 무대에서 화려한 미디어파사드
아트와 함께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전남 행보로 순천을 선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호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은 그 시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총체
이고, 이번 박람회로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
혔다. 4월 1일부터 7개월 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165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서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정원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

순천시(율촌1산단)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부지에 최종 선정되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는 500억 원을 투자해 율촌1산단에 2만 3140㎡ (약 7천평) 규모의
단 조립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순천시(율촌1산단)는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인근 산단 등 주변 인프라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최
적의 입지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사체의 각 단을 제작하고 점검하는 시설
인 단 조립장을 통해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등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가장 합리적
이고 미래 지향적인 결정에 대해 시민들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뉴스 ★ 핫이슈

선암사·송광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순천시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사찰 선암사와 송광사의 관람료가 지난 5월부터 폐지되었다.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결과이다.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의 소박하지만 수려한 모습과 대한민국의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의 화려한 불교문화의 정수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순천을 방문한 정원박람회 관광객들도 거쳐가는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여행 관광 약자 이동 차량 운영

순천시가 관광 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를 맞춤형 코스로 운행하는 '순천여행 관광 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한다. 시는 관광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개별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여행용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1대를 도입했다. 휠체어석 1명과, 일반석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동차량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와 임산부를 위한 안전용품도 비치되어 있다.



- 이용요금 : 3시간 6,000원 / 5시간 10,000원 / 8시간 15,000원
- 운행시간 : 매일 8시 ~ 22시(연중 무휴)
- 예약방법 : 온라인(순천시 바로예약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한 순천북부정류소

1970년 이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순천북부정류소는 매곡동 (중앙로 232)에 위치한 시외버스정류장이다. 순북터미널(순천북부터미널)이라고도 불리는 순천북부정류소는 최근 순천시문화건강센터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새롭게 단장했다.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시외버스 중 호남권, 영남권 방면 일부 노선이 이곳을 경유하고 있으며, 자동발매기를 통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다.

순천시 맞춤형 온라인 청년통합 플랫폼

과거 전화번호를 안내하던 114처럼 순천시 청년들에게 유익한 맞춤형 정보제공은 물론 청년시정참여, 공동체활동, 청년센터 이용까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순천시 맞춤형 청년 통합 플랫폼입니다.

1. 분산된 청년 정책·지원사업 통합 정보 제공
2. 대상·연령·분야별 나의 맞춤 청년정책 검색
3. 천개의 아이디어, 인재풀등록, 공동체 다이어리 등 청년 참여소통 공간
4. 청년센터 대관, 프로그램 신청도 한 곳에서!



접속방법 순천시청 홈페이지 <청년정책114> 배너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

- 내 용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10만원, 2년간 지원
- 모 집 70여명
- 기 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자 격
 - 부부 모두 순천 거주 중인 만19~39세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2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방 법 방문신청
- 문 의 순천시청 청년정책과 ☎ 061-749-4207



순천시의회 안내

의회 방청 안내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의회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방청안내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61)749-4951

의회에 바란다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참여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순천시의회” 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 <http://sccouncil.go.kr>을 직접입력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클릭 → 본인인증 후 글쓰기

의회 민원 상담 창구

전화 061)749-5987

FAX 061)749-4773

의회 전화번호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운영 위원장실	행정자치 위원장실	문화경제 위원장실	도시건설 위원장실
749-4900	749-5972	749-5974	749-5975	749-5976	749-5977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의회사무국 FAX
749-5980	749-5982	749-4950	749-4957	749-4963	749-4773

순천시의회 SNS



페이스북 @순천시의회(suncheoncouncil)



유튜브 @순천시의회(sccouncil)



블로그 @순천시의회(061sccouncil)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 위 원 장 정흥준
- 부위원장 장승태
- 위 원 김성홍 김성재 장경원
최현아 정광현 양동진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4.1. ~ 10.31.

- 발행일 : 2023. 6.
- 발행인 : 순천시의회 의장
- 전 화 : 061)749-4965
- F A X : 061)749-4773